

韓國新聞의 構造的 성격變化에 關한 一考

—機能別 記事件數 및 크기의 變化를 通하여—

指 導： 金 圭 煥
 研究者： 朴 玉 春*

目 次

I. 序 言	1. 環境監視記事와 그 Source
II. 新聞機能의 分類	2. 下意上達(政策決定)記事와 그 方法
III. 調査方法	3. 上意下達(組織化)記事와 그 形式
1. 調査對象	4. 文化維持內容의 記事와 그 役割
2. 調査範圍	5. 緊張解消機能의 記事와 그 內容
3. 調査方法	6. 生活情報記事와 그 性格
IV. 各 機能別 記事의 件數 및 그 크기	7. 其他記事와 그 內容
V. 各 機能內에서의 特性別 比較	VI. 맺는 말

I. 序 言

1896년에 創刊된 우리나라 最初의 民間紙인 「獨立新聞」에서부터 自由黨政權末까지의 韓國의 近代新聞은 政治權力 내지 行政機構에 對한 批判, 監視, 警告, 告發의 役割을 躊躇없이 遂行하면서 政治指向의 理論指導의 社會誘導의 性格의 政論의新聞으로 發展해 왔었다.

1920年 日帝治下에서 「民主主義의 支持, 文化主義의 提唱, 朝鮮民族의 表現機關으로서의 自任」을 社是로 宣言하면서 創刊된 「東亞日報社」의 다음과 같은 創刊辭의 一部는 日帝에 對한 鬪爭과 自由黨政權에 對한 民權運動에 앞장서 民主主義의 暢達과 守護에 큰 貢獻을 해온 韓國近代新聞의 基本性格을 잘 表現해 주고있다.

「回顧컨대 日韓合併干茲十年 그사이에 朝鮮民衆은 一大 惡夢의 襲한바 되었섯도다…… 이는 곧 死地라 陷穽이라 自由와 發達을 期치 못할 곳이었섯도다……朝鮮民衆은 實로 苦痛을 感하도다 或은 울고 或은 怒하였도다……朝鮮民衆은 그의 意思를 表現하며 그의 前途를 引導하는 親舊가 될 者를 熱望으로 期待하얏도다. 이에 東亞日報가 生하얏스니 그가 었지 偶然하다하리오」

* 筆者는 現在 本 新聞研究所 研究員

그러나 5.16革命은 韓國言論界에 큰 變化를 가져다준 契機가 되었다.

「첫째,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는 보기 어려운 外的作用에 依한 言論界의 整理가 斷行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放送의 量的 增大 및 政府의 P.R이 強化되었다.

셋째, 言論의 國家意識·社會意識의 強化傾向이다.」⁽¹⁾

뿐만 아니라 60年度 以後의 急激한 社會發展은 國民大衆의 知的水準 및 生活水準의 向上을 가져왔으며 또한 多様な生活樣式과 價値觀을 社會에 出現 시키었다.

따라서 新聞도 各種施設 및 機構의 擴充, 言論人의 資質向上等 內的要因의 充實化와 함께 變化된 政府와의 力學的關係의 調節에 神經을 쓰면서 더욱 多樣化되고 있는 讀者大衆의 新聞에 對한 期待에 副應하도록 努力해 오고 있는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諸狀況 또는 그의 變遷過程 속에서 新聞이 遂行하고 있는 重要的 機能이란 어떠한 것들이며 또 그들 各 機能은 어떠한 方向으로 어떻게 變化되어 오고 있는가?

大略 以上과 같은 點들을 考察해 보므로써 韓國新聞의 構造的 基本性格과 그의 變貌傾向을 把握할 수 있고 나아가서 國內外的 社會的 變動傾向에 對해서도 어느程度의 推定이 可能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Ⅱ. 新聞機能의 分類

紙面의 構造分析을 通하여 新聞機能의 變化傾向 및 그 內容을 調査하기 爲해서는 于先 新聞의 多樣하고 廣範圍한 機能을 範疇化하여 具體的으로 分類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新聞의 어떠한 內容이 어떠한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고 鮮明히 區別하기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어떤 內容은 두개以上の 機能에 重複的으로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어떤 內容은 어떤 機能에도 包含시킬 수 없는 模糊한 性格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스-커뮤니케이션 機能에 關한 몇개의 代表的 先行 分類의 例를 먼저 살펴본다.

Harold D. Lasswell은 다음 세 가지를 明白하게 識別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機能으로 들었다.

「(1) 環境의 監視(the surveillance of the environment)

(2) 環境에 反應하는데 있어서 社會 諸分野와의 相互關係(the correlation of the parts of society in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

(3) 한세대에서 다음 世代로의 社會的 遺産의 傳承(the transmission of the social heritage

(1) 朴有鳳, “매스커뮤니케이션”, 一潮閣, 1965, p. 222.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²⁾

그런데 Charles R. Wright는 Lasswell이指摘한 以上の 機能에 娛樂(entertainment)的 機能을 添加시키고 그 各 機能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첫째, 監視란 어떤 特定社會內외의 環境에서 일어난 事件들에 關한 情報의 蒐集과 分配를 말한다. 그것은 一般的으로 뉴스의 取扱으로 알려진 것과 어느程度 一致한다.

둘째, 여기에서 相互關係의 行爲란 環境에 關한 情報의 解釋과 諸事件들에 對한 反應을 爲한 行動處方을 包含한다. 部分的으로 이러한 活動은 社說이나 宣傳과 同一視된다.

셋째, 文化의 傳承은 情報, 價値, 그리고 社會의 規範을 한 世代로부터 다른 世代에게 或은 한 集團의 構成員으로부터 새로운 構成員에게 傳達하는 것에 焦點을 둔다. 보통 그것은 教育的活動과 同一視되다.

넷째, 마지막으로 娛樂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道具의 效果(instrumental effects)와는 關係없이 根本的으로 즐거움(amusement)을 爲해서 意圖된 傳達行爲를 말한다.」⁽³⁾

한편 Wilbur Schramm은 發展過程 속에서의 Communication이 遂行해야 될 必須的 機能으로서 다음 여섯가지를 들었다.

「(1) 커뮤니케이션은 國民的 意識에 寄與하도록 使用되어야만 한다. (Communication must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feeling of nation-ness)

(2) 커뮤니케이션은 國家計劃의 發言臺로서 使用되어야 한다. (Communication must be used as the voice of national planning)

(3) 커뮤니케이션은 必要한 技術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도록 使用되어야 한다. (Communication must be used to help teach the necessary skills)

(4) 커뮤니케이션은 效果的인 市場을 擴大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使用되어야 한다. (Communication must be used to help extend the effective market)

(5) 計劃이 發展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은 民衆들로 하여금 그들의 새로운 役割을 遂行하기 爲한 準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利用되어야 한다. (As the plan develops, communication must be used to help prepare people to play their new parts)

(6) 커뮤니케이션은 國民들로 하여금 國際社會 속에서의 한 國家로서 그들의 役割을 遂行하기 爲한 準備을 하는데 使用되어야만 한다. (Communication must be used to prepare the

(2) Harold D. Lasswell,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s in Society", in W. Schramm (ed.), *Mass Communication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0, p.118.

(3) Charles R. Wright, "Mass-Communication —A Sociological Perspective—", Random house, New York, 1966, p.16.

people to play their roles as a nation among nations)』⁽⁴⁾

물론 以上과 같은 社會 또는 國家發展過程 속에서의 機能은 커뮤니케이션의 普遍的인 機能과는 區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急激한 社會變動過程속에 놓여있을 뿐아니라 바로 그 變動自體가 新聞의 構造的 性格變化를 促進시키는 原動力이 되고있다고 본다. 따라서 發展過程속서의 커뮤니케이션의 機能에 크게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또 Paul Lazarsfeld와 Robert Merton은 매스·미디어의 多様な 社會的機能을 認定하고 그 가운데에서 代表的인 것으로

(1) 매스·미디어는 公共問題, 個人, 團體 및 社會的運動에 地位를 賦與해준다는 『地位賦與의 機能(The Status Conferral Function)』

(2) 脫線의 行爲를 넌리 알리므로써 大衆社會의 各 構成員에 對한 社會的統制를 強化한다는 『社會的規範의 強制 機能(The Enforcement of Social Norms)』을 提示하고 있다.

또 이들은 複雜한 現代社會의 利益에 反하는 매스·미디어의 『麻醉的逆機能(The Narcotizing Dysfunction)』도 말하고 있다.⁽⁵⁾

그리고 學者에 따라서는 新聞의 機能을 報導的 機能, 娛樂的 機能, 廣告的 機能, 讀者大衆의 平均的 關心에 對한 어필에서 오는 平均化的 機能, 事業的 機能 등으로 分類하기도 한다.

以外에도 新聞機能의 分類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竹內郁郎의 機能分類는 韓國新聞이 갖는 性格上, 그리고 本調査에서 考察코저하는 諸機能의 變貌把握을 爲해서 가장 適切할 것으로 생각된다.

〔(1) 環境監視: 社會體系와 그 構成員의 安全을 圖謀키 위해서 國內外에서 發生하는 重要事件 및 情勢의 變化를 알리는 機能이다.

(2) 政策決定: 社會體系를 最善의 狀態로 維持·發展시키기 爲해서 目標나 計劃의 樹立·決定에 對하여 助言이나 批判을 하는 下意上達의 機能이다.

(3) 組織化: 政策決定機關에 依해서 樹立된 諸般 計劃이나 施策을 그 構成員에게 通知시키고 對立的이며 利害不一致 關係에 있는 集團이나 個人을 調停·協助토록하는 上意下達의

(4) Wilbur Schramm, "Communication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in Lucian W. Pye (ed.), *Communication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 36-42.

(5) Paul F. Lazarsfeld and Robert K. Merton, "Mass-Communication, Popular Taste and Organized Social Action", in W. Schramm (ed.), *Mass Communication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0, pp. 497-502.

統制機能이다.

(4) 文化的 維持 : 모든 社會構成員에게 必要로 하는 共通된 社會規範과 價値意識을 賦與해주는 機能으로서 이는 다시 文化的 規範에서의 逸脫을 막는 制裁의 役割과 文化的 遺産을 繼承해주는 傳承의 役割로 區分된다.

(5) 緊張解消 : 社會體系의 維持存續을 爲해서 그 構成員의 精神的 緊張과 摩擦을 解消해주고 休息을 取할 수 있도록 해주는 機能이다.⁽⁶⁾

그런데 위의 分類에서는 複雜한 大衆社會 속에서의 生活을 爲해서 그 必要가 漸増되고 있는 日常生活을 爲한 情報의 大部分을 文化維持의 機能에 包含시키고 있으나 韓國一般日刊紙에 報道되는 同 記事內容의 性格, 그 頻度數 및 크기를 考慮할때 그것을 文化維持의 範疇 속에 包含시킨다는 것은 適切치 못할것 같았다.

따라서 本調査에서는 竹內郁郎의 上記 五個機能 以外에 現代新聞의 商業化 傾向과 더불어 더욱 強化되고 있는 것 같은 「生活情報의 機能」을 新聞의 基本機能中 하나로 取扱하였다.

以上 6個의 機能에 따라 新聞記事內容을 具體的으로 分類·列擧해 보면 大略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但 本調査의 目的 및 韓國新聞이 지닌 獨特한 性格 때문에 記事內容의 分類가 竹內郁郎의 分類境遇와 一致되지 않는 點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1) 環境監視 : 戰爭·傳染病 等に 對한 記事, 政界動向記事 및 그 解說의 一部, 經濟動向記事 및 그 解說의 一部, 大部分의 外信 및 國外問題에 對한 解說, 火災나 交通事故 等に 對한 報道의 一部, 異常日記에 關한 報道 等……

(2) 政策決定 : 各種 政策 및 그 決定過程에서 批判이나 助言의 性格을 가진 論說, 短評 및 時畫 等, 政黨 및 名種 社會團體의 政府機關에 對한 建議事項 또는 批判이나 協助에 關한 內容의 記事, 政策執行上의 問題點 指摘이나 그 亂脈相 暴露內容 等……

(3) 組織化 : 政府要人の 記者會見 및 談話, 各種 政策이나 計劃의 公示記事, 政府 P.R, 政府人事移動記事 等……

(4) 文化的 維持 : 各種 犯罪, 不正, 非行 等に 關한 報道 및 解說記事, 各種 善行 및 美風에 關한 記事 및 그 勸獎內容 等……

(5) 緊張解消 : 小說, 漫畫, 海外토크, 바둑, 골프, 낚시記事, 映畫, 라디오, T.V프로 및 그 스토리, 스포츠記事의 大部分, 各種 演藝行事, 隨筆, 歷史的 連載物, 文學 및 書評, 興味있는 科學記事 및 그 解說 等……

(6) 竹內郁郎,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社會體系”, 千葉雄次郎 編,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要論, 夫妻閣双書, 1968, pp. 106-120.

(6) 生活情報 :

日氣豫報, 物價市勢 및 소공案內, 住宅案內, 食生活 및 衣裳에 關한 記事, 新刊書籍案內, 各種 모임案內 等……

Ⅲ. 調 查 方 法

1. 調查對象

本調査의 對象은 歷史나 發行部數로 보아 韓國新聞을 代表할 수 있다고 보는 A紙로 하고 다시 A紙의 1966. 1. 15~2. 15까지의 新聞과 1972. 1. 15~2. 15까지의 新聞中에서 各各 二週分씩을 隔日로 抽出하였다.

1966年度 新聞을 對象으로 選定한 理由는 1963年의 民政移讓과 1964年 後半期의 言論波動이 있는 後 1年餘가 지난 時期로서 新聞도 比較的 安定된 立場에서 그 社會의 諸般情勢에 要求되는 正常的 機能을 遂行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어졌었기 때문이다.

2. 調查範圍

調查範圍는 廣告를 除外한 八面 全體의 記事內容이 되었다. 但 66年度에는 四面과 八面이 隔日로 發行되었었기 때문에 標本 抽出時 八面 發行日字의 것이 되도록 하였다.

調查內容은 紙面에 나타난 記事의 各 機能別 頻度數(件數)와 그 크기(段數)에 焦點을 두었다.

그리고 各 機能別로 다음과 같은 點들을 調査해 보았다.

첫째, 環境監視內容의 記事는 그 Source別(國內記事, 外信)記事의 件數와 크기를

둘째, 政策決定內容의 記事는 上意下達의 方法別(直接, 間接) 件數와 크기를

셋째, 組織化內容의 記事는 下意上達의 形式別(直接, 間接) 件數와 크기를

넷째, 文化維持內容의 記事는 그 役割別(制裁, 傳承) 件數와 크기를

다섯째, 緊張解消內容의 記事는 그 內容別(娛樂物, 教養物) 件數와 크기를

여섯째, 生活情報內容의 記事는 그 性格別(衣食住, 其他) 件數와 크기를 各各 살펴보았다

3. 調查方法

調查方法은 1966年度와 72年度 新聞의 每 記事內容을 分析하여 全體件數를 六個 機能別로 分類 比較해 보았다.

또 每 記事의 段數를 調査하여 各 機能別 記事의 平均크기를 比較해 보았다.

段數調査에 있어서 報道記事는 表題가 차지하는 段數를 原則으로, 또 主表題가 가로로 되어있는 記事는 活字의 號數를 基準으로 하여 調査했으며 박스(box)記事는 그 內容 全體가

차지하는 段數를 原則으로 하되 박스의 넓이를 考慮했다.

IV. 各 機能別 記事의 件數 및 그 크기

新聞記事內容을 分析하여 各 機能別로 分類할때 여섯가지 機能以外에 其他 項目을 設定하여 可及的 主觀의 介入을 줄이도록 努力하였다.

그러나 本調査에서도 內容分析法에서의 共通의 問題가 되고있는 客觀性의 維持가 역시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調査內容에 比하여 調査對象 및 샘플사이즈가 너무적어 結果도 斷片的인 것이 되었을 憂慮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記事의 總件數 및 그 크기의 變化를 보면(表 I)件數는 지난 6年동안에 24.3%가 增加하였고 反面 크기(段數)는 平均 0.5段이 작아졌다.

表 I. 各機能別 記事件數 및 크기

機能	區分	年 度	件 數	件 數 的 比 率	平 均 段 數
環 境 監 視		1966	413	33.3	2.6
		1972	651	42.2	2.2
政 策 決 定		1966	158	12.7	4.0
		1972	92	6.0	3.6
組 織 化		1966	131	10.6	2.3
		1972	224	14.5	2.5
文 化 的 維 持		1966	113	9.1	2.4
		1972	115	7.5	2.1
緊 張 解 消		1966	246	19.8	3.4
		1972	308	20.0	3.2
生 活 情 報		1966	64	5.2	2.6
		1972	69	4.5	2.6
其 他		1966	115	9.3	2.5
		1972	82	5.3	2.2
計		1966	1,240	100.0	2.9
		1972	1,541	100.0	2.4

특히 66年度에는 1日 平均 216件의 記事가 收錄되는 間紙가 隔日로 發刊되어 間紙가 發行되지 않은 날자의 新聞은 本調査對象에서 除外했던 點을 考慮하면 記事件數의 增加는 38.9%로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와같은 件數의 增加는 新聞의 報道 및 그 取扱範圍가 더욱 廣範圍해진데서 온 結果일

것이다.

그리고 記事의 크기가 적어진 것은 新聞의 報道 및 取扱範圍의 擴大에 副應하지 못하는 紙面의 制限에도 原因이 있겠으나 그보다는 新聞編輯方針의 安定性을 表現해주고 있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 같다.

參考로 全體件數와 平均段數를 곱하여 66年度와 72年度 調査對象 新聞의 各 112面に 실린 全體記事 크기의 總合을 比較해 보았다. 따라서 紙面의 數가 같았기 때문에 그 數値의 差異가 적을수록 平均記事크기에 따른 平均記事量이 비슷한 結果가 되는 것이다.

1966年度分: $1,240(\text{件數}) \times 2.9(\text{平均段數}) = 3,596.0(\text{段})$

1972年度分: $1,541(\text{件數}) \times 2.4(\text{平均段數}) = 3,698.4(\text{段})$

全體 段數總合의 差異는 不過 3.5%(102.4段)로서 記事의 平均 크기에 따른 平均記事量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廣告量의 增減이 記事量에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는 點과 本 調査에서는 記事의 크기(段數)를 小數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던 點을 考慮하면 그 差異는 더욱 적어질 것 같다.

各 機能別 記事의 件數 및 크기의 變化를 要約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環境監視內容의 記事는 238件이 늘어 66年度에 比하여 57.6%나 增加하였으며 記事의 크기는 全體 平均減少値와 비슷하게 0.4段이 적어졌다.

이러한 結果는 新聞의 報道範圍의 擴大 및 充實化에서 온 環境監視權能의 強化現象으로서 廣意的으로는 新聞의 商業化傾向과도 關係될 것이다.

둘째, 政策決定內容의 記事는 66件이 줄어 66年度에 比하여 43.1%가 減少되었고 記事의 크기도 0.4段이 작아졌다. 反面 組織化內容의 記事는 93件이 늘어 지난 6年동안 71%나 增加하였으며 記事의 크기도 一般的 傾向과는 反對로 0.2段이 커졌다.

이러한 現象은 5.16以後 國內外情勢의 變化에서 온 言論의 國家的 社會的 責任의 強化 내지 強調가 派生시킨 結果로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新聞이 社會的變動 내지 國家發展 過程 속에서 特別히 要求되는 國民에너지 動員을 爲한 社會指導的 機能을 多樣하게 充實히 遂行하는 過程 속에서 나타난 結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文化維持內容記事의 件數는 거의 變化가 없었으나 그 크기는 一般的傾向과 같이 若干 작아졌다.

約 84%程度가 國內에서 일어난 各種犯罪, 不正, 非行等の 報道를 그 內容으로 하는 同機能內容의 件數가 거의 變化가 없었음은 지난 6年동안의 急激한 社會的變動과 國家發展 過程에서도 社會的規範이나 文化的價値로 부더의 逸脫의 事件이 增加하지 않고 相對的으로 줄어

들었다는 社會相의 健全化를 表現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相對的인 뉴스—패류가 低下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緊張解消內容의 記事는 62件이 늘어 66年度에 比하여 25.2%가 增加하였으며 그 크기도 0.2段 밖에 작어지지 않았는데(全體記事크기의 平均 減少値는 0.5段) 이것은 「商業紙化」라는 資本主義社會 新聞의 一般의 現象 속에서 나타난 當然한 結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生活情報內容의 記事는 그 件數가 거의 增加하지 않아 新聞의 商業紙化 傾向과 더불어 처음에 豫想했던 것과는 反對로 相對的인 減少結果를 나타냈다.

이것은 生活情報內容의 가장 큰 部分을 차지할 家庭主婦들에게 必要한 情報의 提供이 主婦들의 接觸率이 新聞에 比하여 훨씬 높은 TV나 라디오를 通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데에 基因된 것 같다. 따라서 이것은 新聞이 效果의으로 提供할 수 있는 生活情報의 種類는 거의 限定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同機能記事의 크기가 變함이 없어 他機能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커진 點은 限定된 生活情報記事를 보다 充實히 報道하려는 데에서 온 것 같은 結果로서 新聞의 商業紙化現象과 關聯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參考로 記事의 件數가 많은 것 부터 各 機能을 적어 보면

1966年度에는 ① 環境監視, ② 緊張解消, ③ 政策決定, ④ 組織化, ⑤ 文化의 維持, ⑥ 生活情報의 順이고

1972年度에는 ① 環境監視, ② 緊張解消, ③ 組織化, ④ 文化의 維持, ⑤ 政策決定, ⑥ 生活情報의 順이다.

또 機能別 記事의 平均 段數가 큰 것 부터 보면

1966年度에는 ① 政策決定, ② 緊張解消, ③ 環境監視, ④ 生活情報, ⑤ 文化의 維持, ⑥ 組織化의 順이고

1972年度에는 ① 政策決定, ② 緊張解消, ③ 生活情報, ④ 組織化, ⑤ 環境監視, ⑥ 文化의 維持 順이다.

V. 各 機能內에서의 特性別 比較

各 機能別 記事件數 및 그 크기를 各 機能上의 特性에 따라 다음과 같이 再區分하여 比較해 보았다.

1. 環境監視 記事와 그 Source

環境監視記事의 Source 를 外信과 國內記事로 區分하여 比較해 보면 66年度에 比하여 그 件數는 다같이 急增하였으나 72年度에는 同機能內容의 記事中 外信이 차지하는 比率이 若干 많아졌다. (表 II-1)

表 II-1. 環境監視記事의 Source 別件數 및 그 크기

Source	區分	年 度	件 數	件數의 比率	平 均 段 數
國 內 記 事		1966	179	43.3	2.9
		1972	273	41.9	2.3
外 信 記 事		1966	234	56.7	2.4
		1972	378	58.1	2.1
計		1966	413	100.0	2.6
		1972	651	100.0	2.2

또한 外信에 比하여 國內記事의 段數가 크게 取扱된 것은 變함이 없으나 國內記事가 0.6 段이 작아진데 反해 外信은 0.3段이 작아져 國內記事와의 크기차가 0.5段(66年度)에서 0.2 段(72年度)으로 좁혀졌다.

이러한 結果는 最近의 急激한 國際情勢의 變化가 新聞紙面에 反映된 것으로 理解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新聞의 國外問題에 對한 報道의 充實化 및 外信에 對한 뉴스-밸류의 上昇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國內記事의 平均크기가 外信에 比하여 變함 없이 컸던 點은 「뉴스에 對한 讀者의 關心은 距離와 反比例하며 또 親疎의 關係와도 反比例한다.」⁽⁷⁾는 뉴스-밸류의 身邊性과 關係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下意上達(政策決定)記事와 그 方法

政策決定機能內容의 件數는 社說, 短評, 投稿 等を 通하여 主로 이루어지는 直接的인 下意上達 方法과, 政策上的 矛盾이나 亂脈相을 暴露하고 政策的 是正點을 指摘하는 報道記事가 大部分을 차지하는 間接的인 下意上達方法이 다같이 거의 半減되어 同機能內에서의 各 方法 別 比率에는 變化가 없는 것 같았다. (表 II-2)

한편 記事의 크기는 間接的인 方法의 境遇 0.7段이 작아졌으나 直接的인 方法의 境遇에는 거의 變化가 없었다.

이것은 間接的인 方法의 內容이 그 件數의 激減과 더불어 記事의 段數도 크게 작아졌음을

(7) 朴有鳳, op. cit., p.103.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II-2 政策決定記事의 方法別 件數 및 그 크기

方法	區分	年 度	件 數	件數의 比率	平 均 段 數
直 接 的 上 意 下 達		1966	44	27.8	3.9
		1972	25	27.2	4.0
間 接 的 上 意 下 達		1966	114	72.2	4.1
		1972	67	72.8	3.4
計		1966	158	100.0	4.0
		1972	92	100.0	3.6

그리고 直接的인 方法의 記事件數가 激減된 것은 66年度에는 直接的인 政策決定機能의 內容을 相當히 많이 실었던 社說, 短評, 投稿欄들의 一部가 72年度에는 組織化나 環境監視機能의 內容을 많이 取扱하게 되었음을 말해 주고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全體 記事의 크기가 작아진 一般의 傾向과는 달리 直接的인 方法의 政策決定機能記事의 平均크기가 거의 變動이 없었음은 新聞의 直接的인 下意上達機能의 遂行은 社說, 短評, 投稿 等に 거의 局限되고 있음을 再確認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들이 紙面에서 차지하는 넓이도 거의 變化가 없었음을 立證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3. 上意下達(組織化)記事와 그 形式

政策當局責任者의 記者會見, 談話 等を 通하여 大部分이 이루어지는 直接的인 上意下達形式의 內容과 國家機關의 政策이나 方針, 政府 P.R 等の 純粹한 報道, 그에 對한 批判이나 助言의 性格을 包含하지 않은 支持나 讚揚 等の 記事가 大部分인 間接的인 上意下達形式의 內容이 다 같이 그 件數는 많아졌으나 72年度에는 直接的인 形式의 記事가 차지하는 比率이 若干 더 많아진 것 같았다. (表 II-3)

表 II-3. 組織化內容記事의 形式別 件數 및 그 크기

形式	區分	年 度	件 數	件數의 比率	平 均 段 數
直 接 的 上 意 下 達		1966	29	22.1	3.1
		1972	68	30.4	2.9
間 接 的 上 意 下 達		1966	102	77.9	2.1
		1972	156	69.6	2.3
計		1966	131	100.0	2.3
		1972	224	100.0	2.5

이것은 直接的인 形式의 上意下達內容이 組織化機能內容의 全體 增加率(3.9%)보다도 4.3%가 더 增加된 結果로서 言論을 通한 直接的인 形式의 組織化가 政策當局에 依해서 더욱 強

化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크기도 平均 0.2段 밖에 작아지지 않았음은 新聞 역시 直接的인 形式의 上意下達內容을 66年度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더욱 重要하게 取扱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間接的인 形式의 組織化內容의 件數가 53.9%라는 높은 增加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가 一般的傾向과 反對로 커졌음은 政策當局에 依한 上意下達에 言論의 協助가 더욱 增加된 것 같은 傾向을 意味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이것은 社會變動過程 속에서는 新聞의 組織化機能이 國家發展을 促進시키는데 政府와 더불어 大端히 重要的 役割을 遂行한다는 一般的 傾向을 反映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4. 文化維持內容의 記事와 그 役割

各種 犯罪나 不正, 스캔들 등을 告發 내지 暴露하므로써 社會構成員들의 社會規範이나 文化的價値로 부터의 逸脫을 막고 또 逸脫에 對한 社會的規制措置를 取하도록 하는 制裁役割內容의 件數와 各種 善行 등의 報道 및 그의 勸獎을 通해서 健全한 社會的規範과 文化的價値를 傳承하는 役割의 記事件數는 다같이 變化가 없었다. (表 II-4)

新聞의 報道機能이 強化되고 그 範圍가 擴大되는 傾向을 考慮할 때 이러한 結果는 他機能에 比한 同機能의 相對的 減少現象으로서 社會相의 安定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한편 그 크기가 制裁內容의 記事는 一般的傾向과 같이 작아졌으나 傳承內容의 境遇에는

表 II-4. 文化維持內容記事의 役割別 件數 및 그 크기

役割	區分	年 度	件 數	件數의 比率	平 均 段 數
制	裁	1966	94	83.2	2.4
		1972	97	84.3	2.1
傳	承	1966	19	16.8	2.1
		1972	18	15.7	2.2
計		1966	113	100.0	2.4
		1972	115	100.0	2.1

反對로 若干 커진 것 같은데 이는 新聞이 健全한 社會風土의 造成을 爲한 努力의 一環으로서 傳承內容의 記事를 더욱 重要視한데서 오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解釋은 傳承內容의 件數가 매우 적었기때문에 意味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5. 緊張解消內容의 記事와 그 內容

小説, 慢畫, Sports 記事, 바둑, 골프, 放送프로 및 그 內容 紹介, 演藝프로 및 그 內容

등이 大部分을 이루는 娛樂物의 件數와 歷史的 連載物, 隨筆, 詩, 書評, 科學 및 文學에 對한 解說記事 등이 中心內容이 되고있는 教養物의 件數는 다같이 增加하였다. (表 II-5). 그리고 그 크기도 平均減少值보다는 적었지만 一般的傾向처럼 작아졌다.

但 變함없이 教養物의 크기가 娛樂物보다 平均 2段程度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教養物記事의 大部分이 많은 段數를 차지하는 박스(box) 記事로 되어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表 II-5. 緊張解消記事의 內容別 件數 및 그 크기

區分	內容	年 度	件 數	件數의 比率	平 均 段 數
娛 樂 物		1966	178	72.4	2.3
		1972	231	75.0	2.7
教 養 物		1966	68	27.6	4.9
		1972	77	25.0	4.7
計		1966	246	100.0	3.4
		1972	308	100.0	3.2

또 充分한 意味가 있을 만큼의 差異는 아니었으나 教養物에 比하여 娛樂物 件數의 比率이 若干 增加한 傾向을 보여 同機能自體內에서도 新聞의 商業化性格을 나타내준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6. 生活情報記事와 그 性格

物價市勢, 衣裳, 料理, 住宅, 水道, 電氣 等과 같이 日常生活에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衣食住問題에 對한 情報와 交通, 日氣豫報, 新刊書籍, 各種모임이나 行事案內 等과 같은 其他의 情報는 件數, 그리고 同機能自體內에서 各件數가 차지하는 比率에 거의 變化가 없었고 다만 衣食住問題에 對한 情報內容의 크기가 0.6段이 커졌을 뿐이다. (表 II-6)

이것은 全體記事의 平均減少值인 0.5段을 考慮하던 무려 一段이나 커진 結果로서 新聞이

表 II-6. 生活情報記事의 性格別 件數 및 그 크기

性格	區分	年 度	件 數	件數의 比率	平 均 段 數
衣 食 住 問 題		1966	13	20.3	2.8
		1972	16	23.2	3.4
其 他 情 報		1966	51	79.7	2.5
		1972	53	76.8	2.4
計		1966	64	100.0	2.6
		1972	69	100.0	2.6

限定된 種類의 生活情報記事 中에서도 衣食住問題에 對한 情報를 其他情報에 比하여 더욱

重要視한데서 온 結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한편 衣食住에 關한 것보다 件數가 훨씬 많은 其他生活情報記事의 크기가 若干 작아져 全體生活情報內容記事의 크기가 같아졌는데 이것을 全體記事의 平均크기에 따른 記事量이 거의 비슷하였던 앞의 結果와 關聯시켜 생각해 보면 生活情報記事 全體가 紙面에서 차지한 넓이는 거의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7. 其他記事와 그 內容

本調査에서 分類한 新聞의 六個機能中 어떤類型에도 包含시킬 수 없었던 模糊한 性格의 記事를 便宜上 表(II-7)와 같이 區分해 보았다.

表 II-7. 其他記事의 內容別 件數 및 그 크기

內容	區分	年 度	件 數	件數의 比率	平 均 段 數
政 治		1966	19	16.5	3.3
		1972	13	15.9	3.4
經 濟		1966	12	10.4	3.7
		1972	5	6.1	3.6
社 會		1966	59	51.3	2.3
		1972	50	61.0	2.0
文 化		1966	25	21.7	1.8
		1972	14	17.1	1.6
計		1966	115	99.9	2.5
		1972	82	100.1	2.2

結果는 社會問題에 關한 記事가 半以上을 차지하여 機能分類上 애매한 性格의 것이 가장 많았음을 보여 주었고 記事의 크기는 一般의 傾向과 비슷한 比率로 작아져 記事의 平均크기가 줄었다는 앞의 綜合的結果를 補完해 준 것 같았다.

V. 맺 는 말

本調査結果에 依하면 지난 6年동안 韓國新聞은 그 構造的 性格面에서 많은 變化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于先 環境監視機能의 內容과 緊張解消內容의 記事件數가 크게 增加하였고 生活情報內容記事의 平均段數가 他機能內容의 記事에 比하여 顯著히 커지므로써 韓國新聞의 商業化傾向을 立證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政策決定機能內容의 記事件數와 그 크기가 相當히 줄고 反面 組織化內容의 記事件

數와 그 크기가 급증하므로써 韓國近代新聞은 그의 傳統的 성격이 되어왔던 政論紙의 성격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한 韓國의 新聞도 發展途上國家의 新聞에게 要求 내지 強要되는 機能을 遂行하는 方向으로 性格轉換을 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러나 權威紙의 성격과 關係되는 政策決定 및 組織化內容의 記事件數와 크기가 大衆紙의 성격과 關係되는 緊張解消 및 生活情報內容의 記事件數 및 크기와 비슷하고, 兩性格에 다같이 關係된다고 볼 수 있는 環境監視 및 文化維持內容 記事의 件數가 거의 半을 차지하는 分布率을 보이므로써⁽⁸⁾ 一般公衆 全體를 讀者의 對象으로 삼으려는 韓國新聞의 無特徵의인 製作方針에는 거의 變化가 없었음을 나타내준 것 같았다.

이러한 新聞의 無特徵의 劃一性은 韓國一般日刊紙에 거의 共通되는 性格으로 新聞全體의 發展을 어렵게 하고 있는 原因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韓國의 社會發展 내지 國家發展을 爲해서도 限定된 讀者層을 對象으로 獨特한 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 特徵있는 新聞의 出現이 要求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韓國의 現實과 같이 變動 내지 發展의 깊이와 幅이 큰 社會에서는 公的인 問題에 對한 깊은 關心과, 重要的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 諸問題에 對하여 많은 知識을 가진 높은 教育水準의 오피니온·리더 級階層에게 새로운 情報과 體系的 意見整理를 爲한 資料를 充分히 繼續 提供해줄 수 있는 少數의 權威紙(elite paper)가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權威紙를 要求하는 人口層이 大衆紙의 要求層보다 數的인 面에서는 훨씬 적을 것이다. 그러나 權威紙의 讀者層은 新聞에 對하여 매우 固着的인 習慣性을 가지며 또한 그들의 意見指導的 役割을 통한 權威紙의 影響力은 至大한 것이 될 것이다.

아무튼 本調査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新聞의 構造의 性格變化가 韓國의 社會發展을 爲해서 不必要하다고 생각되는 傳統的 信條, 價值, 習慣, 行動樣式으로부터의 變革을 爲한 目標과 그에 必要한 健全한 行動類型 및 價值體系를 提示하는데 어느程度 寄與의이 될 것인가하는 問題는 하나의 重要的 研究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 政策決定件數+組織化件數의 比率(平均段數)

1966年度=23.3%(3.2段)

1972年度=20.15%(2.8段)

緊張解消件數+生活情報件數의 比率(平均段數)

1966年度=25.0%(3.2段)

1972年度=24.5%(3.1段)

環境監視件數+文化維持件數의 比率(平均段數)

1966年度=42.4%(2.6段)

1972年度=49.7%(2.2段)

따라서 60年代 以後에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韓國新聞의 構造的 性格變化의 方向 및 그 內容을 ‘어떤 社會的活動의 結果(機能)와 그 活動의 背後에 있는 目標나 目的은 區別되어야 한다’는 點을 示唆하면서 컴퓨터의 機能을 다음과 같이 區分한 Robert K. Merton의 「機能理論」⁽⁹⁾의 性格과 聯關시킨 方向에서 科學的으로 考察해 볼 必要性이 있을 것 같다는 點을 마지막으로 附言한다.

Merton의 機能區分

「(1) 顯在的機能(Manifest functions)이란 體制(System)內의 參與者가 意圖하고 認定한 그 體制의 調節(adjustment)과 適應(adaptation)에 寄與的인 客觀的結果(觀察可能한)이다.

(2) 潛在的機能(Latent functions)이란 相對的으로 意圖하지도 認定하지도 않은 結果이다. 그리고 이 意圖하지 않은 結果(潛在的機能)는 다음 세가지 形態로 나누어 진다.

첫째, 어느 指定된 體制를 爲해서 純機能的인 潛在的機能(Latent functions)

둘째, 어느 指定된 體制에 對해서 逆機能을 하는 潛在的逆機能(Latent dysfunctions)

셋째, 純機能的으로나 逆機能的으로나 影響을 미치지 않아 그 體制에 無關한, 따라서 實質的으로 重要치 않은 沒機能的結果(Non-functional consequences)」⁽¹⁰⁾

(9)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Revised and Enlarged Edition)" the Free Press, 1966, Chapter I 參照.

(10) Robert K. Merton, Ibid., p.51.

ABSTRACTS

A Study of the Change 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Korean Newspaper

—The Case of “A” Ilbo—

Park Ok-choon

(Adviser Kim Kyu-whan)

1. Preface

We can characterize most of the Korean daily newspapers until the end of 1960's as the papers of political arguments if we look back their history of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and Syng-man Rhee's regime.

From the beginning of 1960's, however, our society and nation have been rapidly changing. The levels of living and education have been increased remarkably. And various new values and living patterns as well as new expectation on the role of the press have been emerged. Therefore, such radical change and development in all fields of our society might have had some effects on the structure of articles in the Korean newspapers.

2. Function of the Press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unctions of the press. Many scholars such as Harold D. Lasswell, Charles Wright, Paul Lazarsfeld, Robert K. Merton, Wilbur Schramm and Takeuchi Ikuo have attempted to categorize the functions of the press. However, Takeuchi Ikuo's categorization seems to be most proper for this study.

Takeuchi's divisions are as follows:

(1) Surveillance of Environment;

This function is to inform the members of the society serious events and changes of their environment which occur within or without their society, in order to ensure their safety feeling.

(2) Function of Decision-Making;

This function is a kind of upward-communication which may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authorities.

(3) Function of Control;

This function is a kind of downward-communication. It is mostly to inform the members of the society policies or plans made by the decision-making authorities, and to try to make all members to cooperate with the policies implementation.

(4) Preservation of Culture;

This function provides the members of the society with common norms and values that the members are required to have. This is again divided into two sub-functions; one is restrictive function which prevents them from the deviation of the social norms, another is transmissive function which transmits their social heritage to the newcomers.

(5) Dissolution of Tension;

This function is to reduce mental or physical tensions of the members.

In this study, however, we propose a new function to the above five functions. Our new function is that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day-to-day living.

3. Research Methods

It was selected as the sample for this study that every other day's paper of "A" Ilbo from January 15, 1966 to February 15, 1966, and from January 15, 1972 to February 15, 1972. In this study, contents of all the articles in the sampled newspapers were analyzed. We attempted to categorize every article into six functions according to its content. Our analysis mainly concerned with the number and the average column size of article items by each function of the press, especially with the comparison of them between 1966 and 1972.

4. Results

We have found that the entire number of article items increased by 24.3%, whereas the average column size of these article items decreased by 0.5 columns for the last six years. The increase in number of article item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expansion of coverage by the newspapers. And the decrease of the average column size is primarily attributed to the stabilized editorial policy and the lack of newsprints.

The changes in the number and the average column size of article items also indicate changes within the newspaper's each function.

(1) In 1972 the number of article items which belong to "Surveillance of Environment Function" increased by 57.6%, and the average column size decreased by 0.4 columns, in comparison with 1966.

These results are primarily due to the expansion and the strengthening of coverage by the Korean newspapers.

(2) The number of article items relate to "Decision-Making Function" decreased by 43.1%, and also the average column size decreased by 0.4 columns from those of 1966. On the contrary, the number of the article items which belong to the content of "Control Function" increased by 71.0%, and also the average column size increased by 0.4 columns from those of 1966.

These results are primarily caused by the emphasis on the social and 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

These also may be the results of the leading-role performance of the press.

(3) The number of article items belong to "Preservation of Culture Function" decreased in relation to those of other functions.

This mainly results in that the society has been developing in a sound manner. In fact, most of all the articles that belong to "Preservation of Cluture Function" are related to the problem of crimes, misdeeds, and other illegal acts.

(4) The number of the article items which belong to "Dissolution of Tention Function" increased by 25.2% from that of 1966, as expected because of the commercialization tendency of general newspapers.

(5) The number of the article items relate to "Information for Living Function" was similar with that of 1966, contrary to expected.

This result is pirmarily based on the fact that radio and television provide more informations for day-to-day living than the newspapers.

The following is the order of the func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articles items from the heighest to the lowest.

The year of 1966: 1) Surveillance of Environment, 2) Dissolution of Tension, 3) Decision

Making, 4) Control, 5) Preservation of Culture and 6) Information for day-to-day living.
 The year of 1972: 1) Surveillance of Environment, 2) Dissolution of Tension, 3) Control,
 4) Preservation of Culture, 5) Decision-Making and 6) Information for Living.

The following is the order of the functions according to the average column size of articles from the largest to the smallest.

The year of 1966: 1) Decision-Making, 2) Dissolution of Tension, 3) Surveillance of Environment, 4) Information for Living, 5) Preservation of Culture and 6) Control.

The year of 1972: 1) Decision-Making, 2) Dissolution of Tension, 3) Information for Living, 4) Control, 5) Surveillance of Environment and 6) Preservation of Culture.

5. Discussion

Judging from th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Korean daily newspapers seem to have been developing toward commercialization and to have reduced the number and the average column size of article items on political arguments. On the other hand, the newspapers's all inclusive-characteristics in their editorial policies, by which the newspapers intend to be the papers for every class of the people, seem to be continued with little change. However, the reality of Korea as a developing country requires coming into existence of a few elite papers to lead the people.

We suggest that it should be further explored whether or not such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daily newspapers as our study shows is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